

섬에 매력 입히니...신안군 인구 10년만에 늘었다

민선 8기 2주년 군정 성과 보고회...인구소멸 대응 5대 군정 1섬 1정원화·1섬 1뮤지엄·청년 어선 임대사업 등 속속 성과

신안군이 11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1섬 1정원화'와 '청년 어선 임대사업' 등 군정 주요 성과를 주민들에 보고했다.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열린 '민선 8기 2주년 군정 주요성과 보고회'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군정 주요 성과와 신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 등이 발표됐다.

신안군은 '인구소멸·지역소멸 대응' '문화·예술이 가득한 섬' (1섬 1박물관) '사계절 꽃 피고 숲이 울창한 섬' (1섬 1정원), '다양한 소득사업 발굴' '지역 자원 활용' (햇빛·바람연금) 등을 5대 군정 방향으로 내걸었다.

신안군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과 '재정자립도 하위'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됐다. 지난해 '1섬 1뮤지엄' (박물관), '1섬 1정원화' 등 여러 시책을 벌인 결과 인구

가 늘어난 인구감소지역 9곳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안 인구는 3만8037명으로, 전년보다 0.5% (179명)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기록한 증가세이다. 전남 인구는 1년 새 181만 7697명에서 180만4217명으로, 0.7% (-1만3480명) 줄었다.

신안군은 문화·예술을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섬마다 대표 미술관을 유치하는 '1섬 1뮤지엄'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야나기 유키노리, 올라퍼 엘리아슨, 안토니 고퍼리, 마리오 보타, 박은선 작가 등의 작품을 신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섬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은도 '피아노의 섬' 축제와 프랑스와 협업한 비금도 '삼막' (삼패인-막걸리) 축제 등도 인기를 더하고 있다.

크고 작은 섬에 정원을 만들어 생명력을 불어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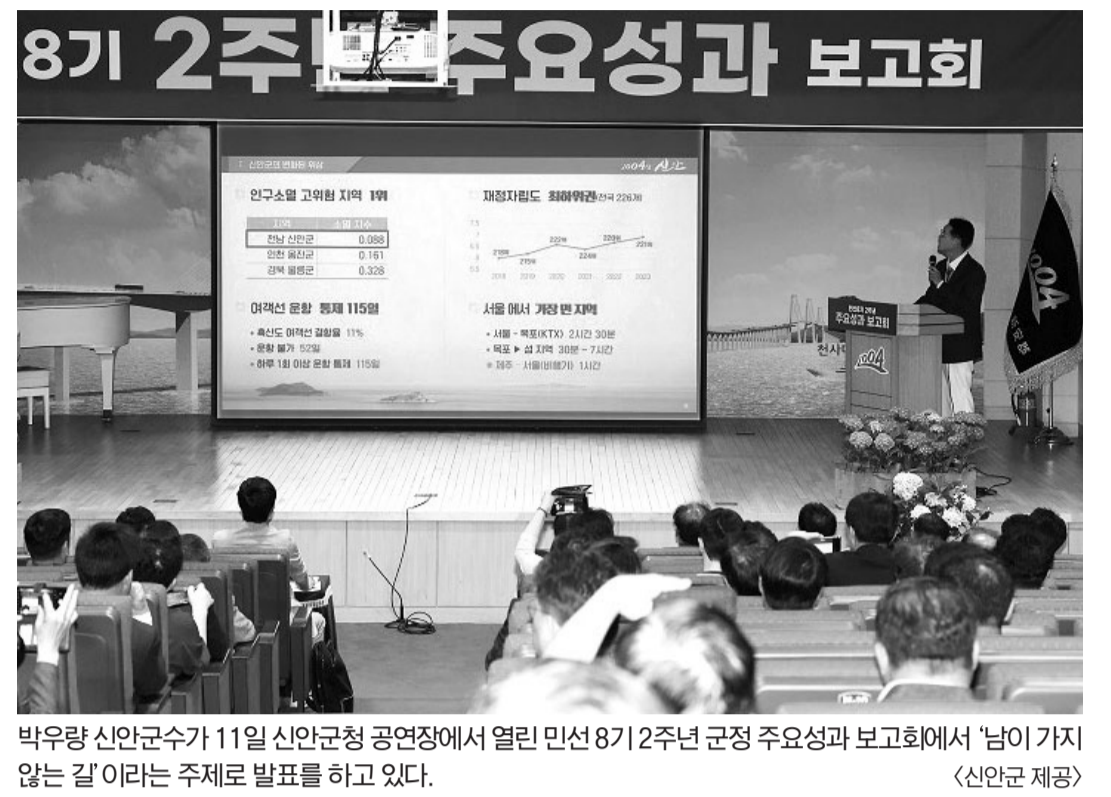
는 '1섬 1정원화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14개의 읍·면으로 구성된 본도뿐만 아니라 선도, 병풍도, 옥도 등 작은 섬에도 꽃과 나무를 심어 불거리를 다채롭게 했다.

신안 섬의 각종 꽃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 파플섬 (안좌면 박지도) 등이 인기를 끌면서 신안 곳곳은 연간 100만명 이상 찾는 관광 명소로 발돋움했다.

신안군은 '세계적인 섬 정원'을 내걸고 체계적 관리 위한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귀농·귀어인과 청년 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 어선임대 사업', '만원 주택사업', '햇빛·바람연금' 등을 펼치고 있다. 장산-자라-주포-비금 간 연도교 사업, 암태 신석-수곡 도로시설 개선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신안군 의회의 협조, 군민의 성원이 더해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군민이 행복한 신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이 끝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자리에 있는 그 날까지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가 11일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열린 민선 8기 2주년 군정 주요성과 보고회에서 '남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완도해역 건강한 바다로...꼬막·해삼 종자 32만마리 방류

하반기 바지락·솜뱅이 종자 방류

완도군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꼬막과 해삼 종자 32만마리를 완도해역에 방류했다고 11일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고금면 봉명리, 세동리에 꼬막 20만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올해 17만마리를 완도읍 장좌리와 군외면 달도 해역에 방류했다. 방류 꼬막은 1cm 이상 참꼬막으로 꼬막 중 크기가 가장 작다.

방류 후 최소 2년 6개월 정도 키워야 상품성이 있다. 수작업으로 채취하기 때문에 다른 꼬막류보다 가격이 3~4배 비싸다.

완도군은 또 청해삼 15만마리를 완도읍 정도리, 노화읍 동고리, 신지면 가인리, 소안면 구도, 생일면 굴전리 등 5개 해역에 방류했다.

해삼 종자는 1g 이상으로 10개월이 지나면 출하가 가능하다.

완도군은 방류한 꼬막, 해삼이 출하될 때까지 무단 조업을 금지하고 어촌계와 협력해 방류 효과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완도군 어민들이 꼬막 20만마리를 완도읍 장좌리와 군외면 달도 해역에 방류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올해 하반기에는 바지락과 붉은 솜뱅이 종자도 방류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종자 방류가 건강한 수산자원 조성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 삼호 뿌리 특화단지 자동화 혁신 사업

산자부 공모 선정 국비 4억원 확보

영암 삼호 뿌리 특화단지에 있는 조선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화 혁신 사업'이 추진된다.

영암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34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영암군은 총사업비 9억 8700만원을 투입해 '영암 삼호 뿌리 특화단지' (삼호 일산단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삼호 뿌리 특화단지에 입주한 67개 기업이 '자동화 혁신 사업'과 '외국인 교육 체계'를 갖추게 된다.

영암군은 HD현대삼호 사내협력사 협동조합과 함께 ▲자동화 로봇 8대 도입 ▲자동화 혁신 추진단 설립 ▲전문 자격 검증 체계 구축 등을 벌일 방

침이다.

생산 과정에서 쓰일 자동화 로봇 8대 외에도 교육용 협동로봇 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화 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매달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4개 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도 만들 예정이다. HD현대삼호는 자동화혁신센터를 주축으로 한 전문성 평가와 인증시험도 벌인다.

영암군은 67개 기업의 융접, 표면처리 분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4차산업혁명과 K-뿌리조선업을 이끌 토대를 다질 방침이다.

임성호 영암군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조선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도 동시에 해소하는 성공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산업발전,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 다음달 10일 개장

영광군은 다음 달 10일 가마미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지역 해수욕장을 잇달아 개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영광군과 관계 기관, 해수욕장 인근 마을 대표 등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광군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 영광경찰, 영광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수욕장의 운영 기간과 운영 방법, 안전관리 계획 등을 협의했다.

영광의 대표 해수욕장인 가마미 해수욕장은 오는 7월10일부터 8월18일까지 40일간, 이어 송이도 해수욕장은 7월20일부터 8월11일까지 23일간 피서객을 맞는다. 가마미 아쿠아 월드(물놀이장)는 오는 8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해변가요제를 연다.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 많은 피서객이 영광 해변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영광군은 시설 안전점검과 개·보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화장실과 목욕장을 개선하고, 소나무를 더 심을 방침이다.

/영광=김정원 기자 kcw@kwangju.co.kr

해남 명랑해상케이블카 '1+1' 할인 행사

7월까지 동반인 1명 무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유숙을 자랑하는 '울돌목'을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는 해남 명랑해상케이블카가 이달부터 할인 행사를 벌인다.

명랑해상케이블카는 이달 14일부터 7월31일까

지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방문하는 고객에게 '1+1 해피아워'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간 방문하면 동반인 1명은 무료로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 1인당 탑승 요금은 일반 캐빈 1만 5000원, 크리스탈 캐빈 (투명) 1만8000원이다.

명랑해상케이블카는 서해안 일몰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대에 특별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또 다른 볼거리인 울돌목 회오리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명랑해상케이블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랑해상케이블카 인근에는 해남 공룡박물관, 해양생태관, 이순신 해전사기념관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관광 명소가 많다. 해남 산이정원과 포레스트 수목원에서는 여름꽃인 수국의 향연을 만날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